

# 물가 高高해도...해외여행 GOGO

## 광주-인천공항 리무진 하루 이용객 900명 '코로나 전' 회복 지출 줄이고 여행적금 드는 청년 증가...광주은행 상품 인기

경기 불황에도 해외여행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시민들의 해외여행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보복소비' 성격이 짙었지만, 최근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해외로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여행 관련 경제 수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이용객만 하루 평균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유스퀘어 발(發) 인천공항 1터미널행 버스는 모두 1212대, 총 이용객은 2만53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2월 672대, 1만3790명 대비 배치는

80.4%, 이용객은 84%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지난 2019년 12월, 배차 1232대, 이용객 2만5945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100% 가까이 회복된 셈이다.

특히 요일별로 상이하지만, 하루 평균 운행되는 40대 중 10대가 고객 수요 증가에 따른 임시배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오는 20일 인천공항 행 리무진 버스의 경우 예약 가능한 좌석이 차량당 1~2자리에 불과하고 뒤늦게 편성된 임시배차의 경우에도 높은 예약율을 기록하고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해외여행은 최소 2~3달 전 계획되는 만큼, 미리 예약하는 고객이 많아 뒤늦게

출국 시간에 맞춰 버스를 예약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며 "금호고속은 이 같은 고객 수요에 따라 '피크타임'에 임시 배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이 지난해 12월 한 여행회사와 연계한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지역민들의 참가가 늘어나고 있다.

광주은행은 오는 3월 15일까지 광주은행 KJ카드 국내 여행사인 여행박사 100만원 이상 결제 시 7%를 즉시 할인하며, 해외여행 패키지 및 자유여행 상품 구입 시 선착순 285명을 대상으로 최대 7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용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은행 KJ카드 개인신용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7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 고객이 이벤트에 참가했다.

여행관련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다. 여행·숙박 플랫폼인 아날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글로벌 항

공-해의 속소를 포함한 해외여행 거래액이 전월 대비 178% 성장하며 역대 최고인 24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글로벌 항공 거래액은 월평균 25%씩 성장했다.

하나투어도 작년 4분기 해외 패키지 송출객이 44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고 밝혔고, 모두투어의 작년 4분기 해외 패키지 송출객은 26만명으로 작년 4분기 중 가장 많았다.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생겨났다.

오는 19일 친구와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다녀온다는 직장인 이수민(여·29)씨는 여행을 위해 지난 1년 간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물가가 높아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저축하기가 어려워지다니, 여행

을 위한 적금을 들게 됐다"며 "20만원이 한 달로 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 또다시 여행적금을 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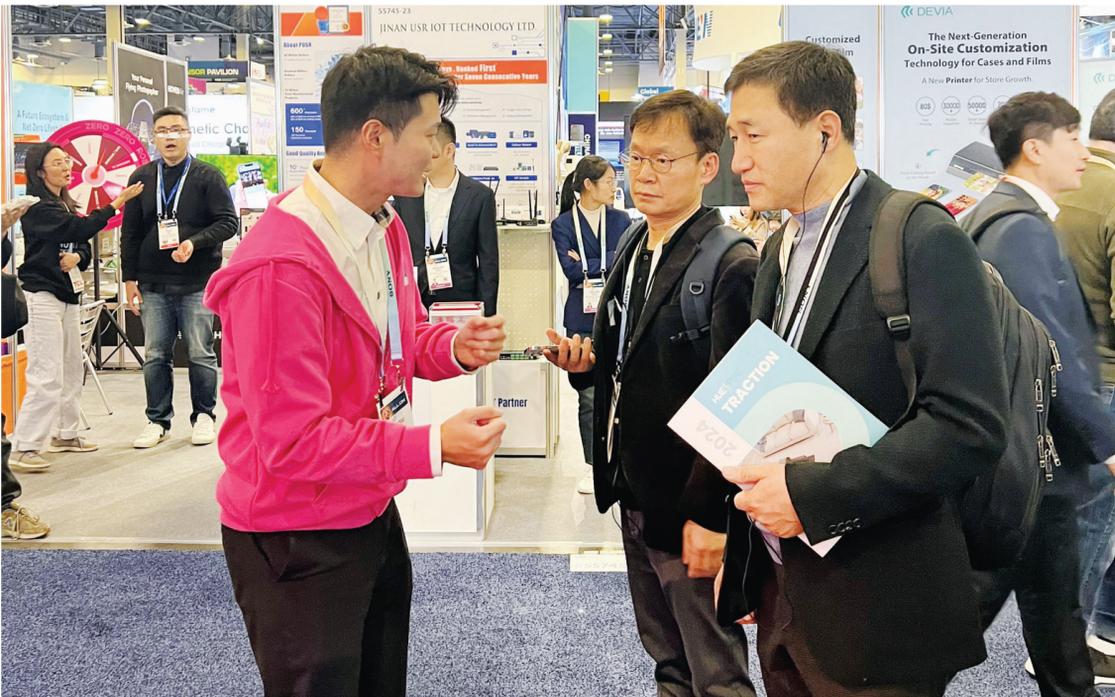
한편 지난해 해외여행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내선-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가 1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항공 여객 수는 1억505만8875명으로, 2019년(1억2336만6608명)의 81.5%를 회복했다.

지난 2020~2022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코로나로 인해 2019년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 여객 수는 3219만명으로 2019년(3298만명)의 97.6% 수준이었으며,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6832만명으로, 4년 전(939만명)의 75.6%로 회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의 ICT융합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를 찾은 고병일(오른쪽) 광주은행장이 지역 기업의 부스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신사업 발굴, 미국을 가다

### 고병일 은행장 등 ICT융합 전시회 'CES 2024' 참관 선진화 된 인공지능 기술 경험·금융산업 방향성 구상

광주은행은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이 광주은행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의 ICT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를 참관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은행장의 CES 2024 참관은 광주은행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해외사업 확장을 위해 타 금융업계와 다른 업종의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참고하고, 매년 고도화되는 디지털 산업과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선진화된 인공지능(AI) 기술

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산업의 방향성을 구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고 은행장은 최근 금융권이 하나의 앱을 통해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정보까지 제공하는 '슈퍼앱'을 출시하는 추세에 발 맞춰 헬스케어·금융·모빌리티·건설·농기계 장비 등 다양한 기술력을 경험함으로써 AI 기술과 광주은행을 접목하는 등 방안을 구상했다.

이날 고 은행장은 지역 유망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과 관련된 기업들의 부스를 모

두 방문해 지역 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안내받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직접 체험했다.

또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내 혁신 기술의 발전 및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내 유망 기업들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응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은행 산업이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해도 산업의 변화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은행 또한 변화와 혁신에 민감히 반응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 업체들의 CES 혁신상 수상 등 글로벌 진출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 지역의 미래산업을 발전시킬 업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 신규채용 2배로 늘린다

### 상반기 183명 등 올해 577명...지역인재 채용 확대

극심한 재정난에 지난 5년간 신규채용을 줄여 온 한전(광주일보 1월 17일 8면)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77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 744명의 임직원이 퇴직했지만, 신규채용은 266명에 그쳤다. 한전은 코로나19와 '라-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약세가 겹치면서 총 부채규모가 200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재무위기는 곧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져 퇴직자의 빈 자리를 채우기 어려웠지만, 올해 신규채용을 2배 이상 늘리면서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을 1월로 앞당기고, 대졸 수준 127명, 고졸 11명, 전기원 45명 등

총 183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24명에 불과했던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형 인턴도 지난해(229명)보다 대폭 증가한 6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체험형 인턴의 상반기 채용 규모는 270명으로, 한전은 체험형 인턴 채용을 통해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자립 청년 등에 다양한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분산에너지 전원특별법 이행 등 핵심사업 조기 추진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17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한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사건)

행사는 이현호 본부장, 최순동 농협생명 광주총국장, 홍현실 농협손해 광주총국장 등 광주지역 농협 상호금융 마케팅 우수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고객 민원 최우선 해결 ▲금융사기 피해예방 ▲불법 자금 세탁

행위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마케팅 우수직원들의 성공 사례와 2024년 상호금융 사업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현호 본부장은 "금융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 행복을 실천하여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중기·자영업자·소상공인 특별자금 4969억 지원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내달~7월 대출금의 50~75%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규 특별자금 4969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유요분을 활용해 마련한 지원금이다.

기준금리 동결과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대와 자금조달 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기존 지방중소기업 지원 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할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은행권이 오는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금의 50% 또는 75%를 연 2.0%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지원 지역은 광주·광양·나주·순천·여수·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영광·장성·함평·화순 등 14곳이며, 한국은행 목표본부 관할 지역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유통·금융관련·전문서비스·보건·도박

업 등 대출 제외 업종과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유망업체, 타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업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대출 상환 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자금은 중신용(4~5등급) 업체는 50%를 지원하고, 저신용(6~10등급·무등급 및 SOHO 포함) 업체는 75%를 지원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0억원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의 지원 자금을 더해 상당한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위니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5.90(-61.69)
↓ 코스닥	833.05(-21.78)
↑ 금리(국고채 3년)	3.277(+0.042)
↑ 환율(USD)	1344.20(+12.40)

## 광주전남중기청, 소상공인 시책 설명회

### 24일 광주·25일 전남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오는 24~25일 '2024년 소상공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교육장에서, 전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순천에코(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며,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희망 지역에서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과 개별 문의사항에 대한 1대 1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5000억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한시 지원(2520억원) 등 새롭게 시행되

는 정책과 달라지는 제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 광주전남병무청,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소담스퀘어 광주, 광주지역산센터 등도 참여해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전접수 또는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중기청 소상공인(062-360-9161)로 문의하면 된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소상공인 지원시책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